

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메시지

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온 국민과 함께 봉축드립니다. 자비광명으로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신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립니다.

부처님께서는 출가와 고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, 만유불성과 자타불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부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가 새기고 따라야 할 소중한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.

특히 불교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각별합니다.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했던 역사의 중심에 늘 불교와 불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.

지금 우리는 선진한국의 길목에서 거센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.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,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저출산·고령화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.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은 하루빨리 합의를 이루고,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.

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문화, 멀리 내다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. 이것이 상생과 화합의 불교정신을 실천하고, 이 땅 위에 불국토를 구현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

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나라, 앞서가는 사람을 힘껏 응원하고 뒤처진 사람도 끌어안고 함께 가는 따뜻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불교계 여러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.

부처님 오신 날을 거듭 봉축드리며,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